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북한선교 소식지

두리하나

2017

상반기

www.durihana.com

통권 84호

두리하나 국제학교 학생들의 통일...

기자 체험 탈북 청소년들 "신문 만드는 일 너무 신나요"

2017년 제7차 한·독 통일 자문 위원회 "와글 와글 합창단 초청공연"


SPECIAL |

예수님을 만난 기적의 소녀 "춘미"



2017. 5. 21

60mm W.



북한선교를 위한 두리하나 월요모임

북한에도 복음의 빛이...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장 소 : 두리하나교회 본당

문 의 : 02-532-2513

북한선교를 위한 두리하나의 기도

- ▶ 북한 지하교회와 북한의 복음화를 위하여
- ▶ 중국과 제3국에서 유리방황하는 탈북동포의 자유를 위하여
- ▶ 현장 사역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사역의 형통함을 위하여
- ▶ 국내에 입국한 탈북동포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 ▶ 두리하나 국제학교와 그룹홈을 위하여

CONTENTS

2017 | 상반기 | 통권 84호



춘미가 그린 꿈속에서 만난 예수님



- 04 예수님을 만난 기적의 소녀 "춘미"
- 09 두리하나 국제학교 학생들의 통일 (동미연, 심진성, 조원혁)
- 12 잘생긴 얼굴로 바보 연기를 하는 <맨발의 기봉이> 신현준씨의 특강
- 14 최숙미 수필집 中 '두리하나'
- 16 두리하나 국제 학교 체험 활동 이모저모
- 19 탈북자 다큐 '천국의 국경' 키에프 국제 인권영화제서 인기
- 20 와글 와글 합창단 초청공연.

두리하나

두리하나 제호는 우리나라 최고 수묵화 애니메이션 작가인 탁영환 감독의 붓글씨 작품이다. 두리하나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낱 글자 '두'에 힘을 실고, '십자가로 모든 걸 귀결시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의미의 획으로 '나'를 완성했다.

발행처 사단법인 두리하나 | **발행일** 2017년 6월 15일 | **등록번호** 서초 라00278 | **발행인** 천기원
연락처 durihana@gmail.com 02-532-2513
편집 이경희 **편집** 디자인 지승배 | **인쇄** 한일문화사 02-2274-7011
소식지는 두리하나 웹사이트(www.durihana.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적의 소녀 춘미

지난 4월 21일 금요일 예배시간 전에 평소에 말없이 늘 혼자 지내던 '춘미'는 엄마와 오손도손 대화를 원하며 집으로 갔지만 새벽 1시에 퇴근한 엄마는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다 피곤에 지쳐 내일 아침에 이야기 하자며 바로 잠자리로 들었고, 혼자라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춘미는 새벽 1시12분 지인(知人)들에게 '친국에서 만나면 좋겠어요' 라는 문자를 보내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새벽 1시30분, 불길한 예감으로 거실로 나온 엄마는 9층 창문에 놓인 춘미의 핸드폰을 발견했고, 우리는 길고도 갑갑한 시간이 흐른 오전 10시, 춘미가 고려병원 수술실로 들어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탈북민 엄마가 대부분이 그렇듯이 북한에서는 배고픔과 자유를 빼앗기고, 탈북 하는 과정과 중국에서의 삶은 인신매매와, 원하지 않는 결혼으로 모진 학대와 복송의 위협에 시달리며 당했던 공포는 평생 가슴에 지을 수 없는 큰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불안과 공포의 시간이었기에 자유를 찾아 큰 꿈을 안고 일가친척도, 기댈 언덕도 없는 한국에 도착했지만 맨손으로 사춘기 자녀를 데리고 살아가기에는 환경, 문화, 경제적 문제와,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힘겨운 현실들은 결국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며, '두리하나' 학생들 대부분은 편부, 편모슬하에서,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두리하나' 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또래의 친구들과 같은 아픔을 품고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또한 사회와 학교에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따돌림을 당하며, 가정에서는 새 아빠와 엄마의 갈등으로 받는 스트레스와 상처는 어린 나이에 스스로 짊어져야 할 짐과 넘어야 할 장벽이 너무나 무겁고 높기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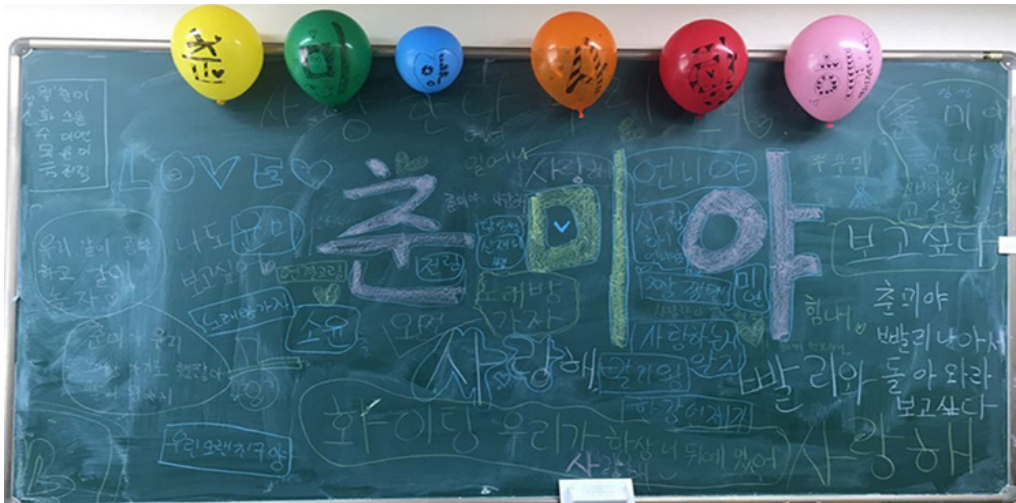
KUMC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수술실 입니다.		현재시각 : 16시 08분
No	환자성명	수술과	진행상태	
1	주 춘 *	신경외과	수술 중	

10시부터 수술실 전광판 앞에서 기다린 춘미 엄마는 오후 5시 40분, 7시간동안 긴 수술을 집도한 의사선생님이 나오셔서 “떨어질 때의 강력한 충격에 척추 뼈가 부서지고 어긋나 골절 부위가 볼록 튀어나오면 누워 지내는 것이 불편할 수 있어 퍼서 맞추느라 수술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최선을 다 했지만 춘미는 하지마비상태로 평생 침대에 누워서 생활해야 합니다.” 라는 설명에 춘미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통곡을 했고 지켜보던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라파(치료) 하나님이시니 기도하면 고쳐 주십니다.” 며 어깨를 감싸고 위로했지만 울음은 그칠 줄 몰랐고 가슴이 터지는 아픔으로 우리도 함께 눈물만 흘렸습니다.



8시간 후 마취에서 깨어나는 춘미를 부르자 간신히 눈을 뜨며 “목사님 너무 아파요” 라는 첫마디에 “춘미야 왜 그랬어? 착하고 잘하던 네가 왜 그랬어?” 라는 물음에 “목사님 나 정말 잘했어요?” “그럼 잘 했지, 너는 배려심도 많고 성실하기에 이번에 미국에도 가잖아” 라는 말에 그동안 못 다한 말들을 모두 뱉어내고 싶은지 “정말 잘했어요? 나는 몰랐어요, 친구들도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라며 옆에서 울고 있는 엄마에게 “엄마 울지 마, 나 이제 더 잘할 거야, 파이팅” 하며 주먹 손을 들어 보이며 중환자라는 사실도 의식 못한 채 수다스럽게 말을 한다.

그렇게 짧은 만남이 끝나고 일주일간 면회도 할 수 없는 중환자실에서 지내야 한다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지만 아직 피지도 못한 꽃봉오리 같은 16세 소녀가 평생 하반신마비 장애자로 살아 갈 수밖에 없다는 의사의 진단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주일 새벽에 일어난 침대에 엎드려 먼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드렸습니다. 자신의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라와 지도자를 잘 못 만나 탈북민이라는 굴레를 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부터 열심히 땀 흘리며 마음껏 꿈을 펼쳐보려 했는데, 16세 꽃봉오리가 평생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장애자로 살아가야 한다니, 이건 너무 억울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잠시,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에 절대로 우리의 기도와 춘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란 확실한 믿음이 생겨 춘미의 사연을 전 세계 모든 기도의 동역 자들에게 전하며 기도를 부탁드렸고 두리하나 가족 전원은 한 주간 마음을 모아 새벽 첫 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마지막 시간까지 춘미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며 기적을 소망했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모아 아픔을 함께 한 기도의 응답은 즉각적 이었습니다. 3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춘미는 정신적 충격으로 기억상실증과 허리 아래로는 신경마비로 감각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발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통증에도 걱정하며 방문하는 우리에게 한 번도 웃음을 잃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적의 시작은 사고 후 9일 만에 기억이 되살아나며 춘미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히브리서 11장 6절이 기억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에게 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 다리를 고쳐 주실 것으로 믿어주세요” 라는 고백 이었습니다.



한 달 전 예배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글과 영어로 외우는 학생에게 상금 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일주일 후 가장 먼저 자신 있게 손들고 외운 학생이 춘미였는데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되살아났고 그날 밤 꿈속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살아 계신 예수님을 간증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여 “예수님을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 “사막에서 만났어요. 그 사막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다 춘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구나.” “아뇨?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몇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내 옆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어?” “예수님이 모자 쓰고 있었어요.” 라는 말에 웃음이 나왔다. “예수님이 모자를? 야구모자야?” “아니요, 노란색에 반짝반짝 빛나는 모자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춘미는 ‘두리하나’ 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기에, 예수님의 모습을 성화나 인터넷으로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요한계시록 14장14절’ 금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았을까?

“하지마비상태로 평생 침대에 누워서 생활해야 합니다.” 고 하셨던 의사선생님이 10일 만에 다리에 온기가 돌고, 11일 쯤 왼쪽 발목이 움직이자 “신기합니다.” 하시더니, 12일쯤 양쪽 발을 움직이며 13일쯤 휠체어에 앉아 견더니 15일 만에 드디어 혼자 일어서서 조금씩 걷기 시작하자 “이상합니다.” 하셨고, 퇴원 일정을 논의하자 “신경이 안 끊어졌나??” 며 자신의 진단착오 여부를 의심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막 9:23) 믿음과 기도로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생사화복'(生死禍福)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신기하고,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춘미 앞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춘미가 직접 그림으로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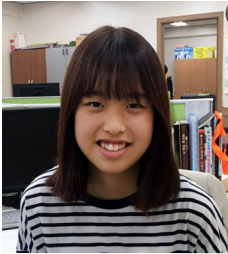
그보다 더 기적 중의 기적은 춘미가 걸을 수 있음 보다는 춘미의 영혼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리하나’ 표어(motto)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엡 2:14~15]. “한 새 사람을 지어”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새사람이란 ‘카이로스 안드로퍼스’ 입니다. ‘카이로스’ 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인 혹은 물량적인 새로움이 아닙니다. 시간적인 새로움도 아닙니다. 이는 질적인 차원의 본질적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러한 시간적인 차이에서 오는 새로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움이란 본질적이지요 인간적인 차원의 것을 의미하는 증생의 문제입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아니고는 새로움이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는 춘미가 사고를 당하고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음을 기뻐하고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늘 불평스러운 표정과 웃음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신만의 성(成)을 쌓던 춘미가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4월21일 금요일 예배시간 전에 ‘두리하나’ 를 떠났다가 35일만 인 5월26일 금요일 예배시간 전에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와 “여러분! 저는 웃지도 않고, 말도 안하던 옛날의 춘미가 아닙니다. 이제는 밝은 모습으로 항상 웃고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돌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새사람이 되었기에 우리는 기뻐하며 기적이라고 합니다.



‘춘미’ 를 걱정하며 기도와 물질로 섬겨 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과 섬김이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육신의 병을 출애굽기 15장26절에서 말씀하신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여 평생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간증하는 삶이 되도록 부탁드린 기도가 35일 만에 정상적으로 퇴원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춘미’ 는 앞으로 자신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며 따뜻한 가슴으로 더 높은 꿈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D**

두리하나 국제학교 학생들의 통일



통일된 한국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동미연(두리하나국제학교 고등반)

나는 북한에서 태어난 엄마의 딸로 한국에서 살고 있다. 엄마는 탈북 했지만,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해 원하지 않은 결혼을 하고 나를 낳았다. 중국에서 살 때 매일 지옥에서 사는 것 같은 생활을 했다. 아빠가 매일 술을 마시고 엄마를 때렸기 때문이다. 엄마는 맞으면서도 때리지 말라고 반항도 못했다. 그런 엄마가 싫었다. 그래서 엄마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짜증을 내기 일쑤였다. 하지만 아빠가 무슨 말을 할 때는 무서워서 짜증을 낼 수도 없었다. 엄마와 나는 이런 생활이 너무 고통스럽고 싫어서 한국에 오겠다고 결심을 하고, 아빠가 나간 사이에 짐을 싸고 연변으로 도망쳐 나왔다.

엄마는 나를 안심시키려고 절대로 붙잡히지 않는다고 안심하라고 했다. 그래서 정말로 안전한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매일 버스에서 멀미를 하고 경찰들의 순찰에 엄마가 숨으라고 했을 때 엄마와 나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엄청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18일 동안 매일 버스를 타고 라오스로 가는 산을 4시간 동안 넘어가며 느낄 수 있었다. 무사히 국경을 넘어 라오스에 도착하여 30일, 한국 국정원에 도착하여 2개월, 하나원에 가서 3개월 동안 교육 받은 후에 엄마와 나는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었다.


한국에 오면 행복할 줄 알았던 생각은 한순간에 깨졌다. 학교에서 내가 중국아이인 것을 알게 되자 왕따가 시작되었다. 학교에 가는 것이 제일 싫어졌고, 엄마는 한국에 정착하기 어려워 식당일 밖에 할 수가 없었다. 꿈을 가지고 한국에 정착했지만, 한국은 적응이 어렵고, 나에게서는 너무나 힘든 곳이었다.

엄마가 생존의 문제로 죽기 살기로 북한을 탈출했고, 인신매매를 당해 원치 않은 결혼을 했지만 더 나은 곳, 더 나은 삶을 항상 생각해 왔다.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종착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중국에서 매일 붙잡힐까봐 불안에 떨고 있는 탈북자들의 모습을 생각하기만 해도 너무 안쓰럽고 슬프다. 그런데 한국 애들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서 통일에 관심이 없고 ‘통일

을 굳이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통일된 대한민국이 된다면 북한 애들한테 공부를 가르쳐 주고 싶다. 공부도 하기 힘든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북한 애들에게 공부의 즐거움을 알려줄 것이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는 격언이 있다. 북한에서 김정은의 세뇌교육만 받는 북한 사람들에게 더 넓은 자유,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가장 중요한 북한과 남한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중국에서 다시 북송되어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이렇게 무사히 한국에 넘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어린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고,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여 통일된 한국에 사랑의 메시지를 널리 퍼지게 하고 싶다. 



통일은 희망의 오작교

(2017년 경찰청 안보사랑 콘테스트 글짓기 부문 우수상 수상작)

심진성(두리하나국제학교 초등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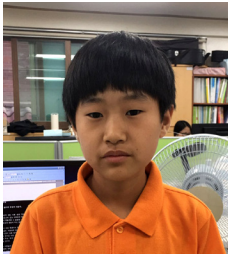
T·V에서 북한의 핵 실험을 보았다. 처음으로 핵이란 위험한 무기를 보았다. 만약에 전쟁으로 핵이란 무기를 쏘면, 우리 가족과 북한에 있는 친구들도 모두 다칠 것이다.

나는 전쟁이 너무너무 무섭다. 우리 엄마와 할머니와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돈을 핵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배고파서 영양실조에 걸려 죽는 아이가 반인데... 북한이 위험한 무기를 만들지 않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우리가 탈북 할 이유도 없고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다.

나는 우리 민족이 너무 불쌍하다. 탈북하다가 총에 맞아 죽고, 잡히면 밖에도 못 나가고, 감옥에서 일만 하고, 밥도 별로 먹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북한과 남한도 서로가 마주보며 웃음 짓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한 민족 한 핏줄이고 한 가족인데도 함께 살 수 없으니... 북한에 있는 할머니와 형이 너무 보고 싶다.

통일은 우리의 소망이자 희망이다. 통일은 나의 할머니와 형을 만날 수 있는 희망의 오작교이다. 탈북해서 온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자유와 행복이 공존한다. 또한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남과 북이 서로의 두 손을 꼭 잡을 그 날을 기대해 본다. 통일이여 어서 오라! 



조금만 더 있으면 통일이 되겠지..

조원혁(두리하나국제학교 초등반)


북한의 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나는 북한에 대한 기쁨, 슬픔, 행복 등을 가지고 있다.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슬픔이다. 두리하나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슬픔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슬픔을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까봐 그 슬픔을 기쁨 또는 행복으로 표현한다. 우리는 배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배워서 무슨 뜻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통일이라는 말이 너무 좋고 통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나는 슬픔, 화, 짜증, 폭발 이런 것이 싫다. 마음속에 있는 나쁜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다 보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이 오래 남아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난 행복한 것이 좋다. 행복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니며, 서로서로 양보하고,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말이기 때문이다. 통일이 된다면 남과 북 모두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림에 죽는 것이다. 북한이 우리를 언제 공격할지 몰라 긴장상태에 있지만, 북한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는 것은 좋지 않다. 나는 북한에 살면서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난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런데 한국으로 와서는 내가 어릴 때 본 모든 것이 잘못된 환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통일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는 통일을 희망하고, 가족이 없거나 원하지 않은 결혼을 해서 태어난 학생들이 많이 있다. 우리 기도한다. 욕심 부리지 않게 해달라고, 통일이 하루빨리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우리만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통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난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대한민국의 통일을 응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목사가님이 될 것이다.

‘조금만 더 있으면 통일이 된다’ 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행복의 그날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최선을 다하며 살 것이다. 



잘생긴 얼굴로 바보 연기를 하는 《맨발의 기봉이》 신현준씨의 특강

잘생긴 얼굴로 바보 연기를 하는 연기파 배우 신현준씨가 ‘춘미의 기적’ 소식을 전해 듣고 2017년 6월 1일 ‘두리하나’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특강을 해주셨다.



신현준씨는 카리스마와 코믹, 상반되는 두 가지 캐릭터를 갖춘 보기 드문 배우다. 그는 영화 <장군의 아들> <은행나무 침대>에서 카리스마를 내뿜다가 2006년 <맨발의 기봉이>를 기점으로 명실상부한 코믹 연기 대가의 반열에 올라섰다. 미남 배우가 바보 연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신선한데 이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은 스펙터클한 외모를 지닌 그가 예능 프로그램이나 토크쇼를 통해 허술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중이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유명하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다.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로 믿음이 깊어진 건 아니지만 부모의 영향으로 더 견고해졌다. 그의 어머니는 도시락 편지에 늘 성경 구절을 적어주시곤 했다.



“주일에는 부모님과 꼭 교회에 나가는 편이에요. 평일에는 성경을 묵상해요. <구약성경> 잠언을 좋아해 매일 한 장씩 읽고 트위터에 성경 구절을 남겨요. (최)수종 선배처럼 친한 선배와 말씀 교화를 하기도 하고요. 교인의 신분으로 술과 담배를 가까이하는 게 부끄러워 술과 담배는 몇 년 전에 끊었어요. 예전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서도 마음 한곳이 걸렸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세간에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가 줄곧 카리스마 있는 역할만 하다가 코믹 연기를 하게 된 것도 종교의 영향이 컸다. 그는 간증을 통해 종종 자신의 속내를 전한다. “줄곧 바쁘게만 살다 보니 어느덧 중견 배우가 돼 있더라고요. 어느 날, 기독교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다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영화감독인 멜 깁슨은 배우 출신이잖아요. 배우 출신인 그가 종교적인 영화



를 만든 걸 보고 스스로 너무 안일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게 됐죠. 저 역시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감동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어떤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TV에서 초라한 밥상을 받고도 행복해하는 기봉이 아저씨를 보게 됐다. 그가 원하는 영화였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좋은 투자사와 배급사를 찾아 영화를 개봉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 <맨발의 기봉이> 같은 가족 영화를 제작해 사람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다.

그가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은 또 있다. 바로 종교다. 자라면서 놀이터의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기도 했었던 그는 여전히 자신의 종교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열성적이다. 요즘은 최수중·하희라 부부와 강수지, 김학래, 현진영 등 여러 연예인과 함께 개척교회 부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매주 목요일 예배가 있을 때마다 그 소식을 트위터에 올리며 홍보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종교를 전하고 싶은 마음도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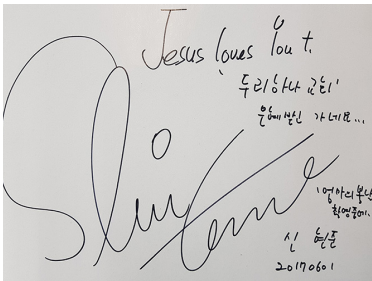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8살 ‘은서’ 양의 돌발질문에 박장대소(拍掌大笑) 하며 긴 속눈썹과 높은 코로 ‘아랍왕자’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실제로 중동 ‘요르단’에 잠깐 살았는데 그 당시의 행복하던 기억이 있어 아랍왕자라는 별명이 싫지 만은 않다고 한다.

“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거나 잃었던 신앙을 되찾는 이가 한 명이라도 있길 기도해요.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봉사하고 신앙 간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얼굴과 전혀 안 어울리죠?”



“춘미의 기적”에 대한 간증을 전해 듣고 자신은 모태 신앙이지만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는데 ‘춘미’는 예수님을 만났더니 너무 부럽다며, 거룩하고 진중한 말을 하다가 갑자기 터져 나오는 위트 역시 그의 매력 중 하나다.

신현준씨는 “에세이 ‘인연’을 읽다가 작가인 피천득 선생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피천득 선생님이 학생들과 대화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적도 있고요. 농담을 섞어가며 얘기하는 유머와 센스에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음에도 다가가기 편한 작가이며 스승이란 점을 닮고 싶어요.”라며 연예인으로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진촬영하려면 피곤하고 지칠 텐데 ‘두리하나’ 학생들의 요구에 한 명 한 명을 다 안아 주시고 기념 촬영도 기꺼이 응해주셨다.



제3세계에 교회도 세웠다. 그것도 두 개나. 지난 2010년에는 카자흐스탄의 아트라우스 레스로주냐야 지역에 두 번째 교회를 지었다. 배우로서 특정 종교의 이미지가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는 주저치 않는다. **D**

두 리 하나

최숙미 작가

연어만이 강을 거슬러 오르는 게 아니다. 폭포를 거슬러 올라야만 할 소명을 가진 이가 있다. 영화 <미션>의 가브리엘 신부는 악기 ‘오보에’ 하나만 메고 절벽을 오른다. 목숨을 걸고 절벽을 올랐으니 일차적 소명에 발을 들여놓은 셈이다. 자신의 출현을 알리려 오보에를 연주한다. 음색엔 두려움이 실렸다. 숲속에서 스멀스멀 원주민들이 나타난다. 떨리는 심정을 오보에 연주에 감추며 그들의 눈치를 살핀다. 그들 또한 타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크기에 몹시 경계를 한다. 오보에 소리에 신기해하는 그들 사이로 추장이 다가와 악기를 빼앗아 망가뜨려 버린다. 목숨을 내려놓을 때 도리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까. 신부는 태연하니 저들의 처분을 기다린다. 경계를 푸는 원주민들의 눈빛은 연주를 원하는 듯하다. 슬그머니 망가진 오보에를 집어 들어 연주를 한다. 그때야 두려움보다는 원주민을 향한 소명에 연주가 뜨거워진다. 그들에게 심어줄 신앙의 첫 발은 무기가 아닌 음악이었기에 감동을 준다. 신뢰가 쌓여가며 신부의 소명이 펼쳐진다. 영화 <미션>의 첫 장면이다.

가브리엘의 신부 같은 삶을 사는 ‘소명자’들이 있다. 탈북자를 돕는 천기원 선교사가 그중의 한 사람이다. 사업차 중국 출장 중에 일명 ‘꽃제비’ 아이들과의 인연으로 탈북자를 돕는 소명자로 나섰다. 편안히 잠을 자고 풍요에 즐거워할 수 없는 고통이 그의 의식을 흔들어 놓았다. 그들과는 혈육도 친척도 아니며 어떠한 인연도 없었다. 왜 그들의 탈북을 돕느냐고 물으면 같은 동포의 고통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들을 사랑해서 좌불안석인 마음뿐이라고 말한다. 자신을 위한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라는 소명 하나로 그들과의 접촉에 나섰다. 삼엄한 중국공안과 내부 고발자들과 북한 경비병들의 눈을 피하며 목숨을 건 모험이 시작되었다.

간간이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두만강 가에 널브러진 시체들은 탈북을 시도하다 목숨을 잃은 자들의 주검이다. 아이조차 울어서도 안 되는 탈출은 끝없이 이어진다. 겨우 강을 건너 중국으로의 탈출이 성공하면 인신매매꾼들이 접근을 한다. 그들에게 붙들린 탈북자들의 운명은 자신들의 것이 못 된다. 일부 여성들은 중국 시골로 팔려가거나 음성 사이트 운영하는 자들에게 넘겨져서 감금된다. 목숨을 건 탈출이 무색하게도 인권이 상권에 남용된다. 음성 사이트를 이용하는 자들은 대부분 남한 남성들이란다. 같은 동포들인 남한의 남성들은 그들의 인권을 간접으로 유린하며 즐긴다지 않는가. 어렵사리 천 선교사와 연락이 닿으면 또다시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한다. 감금된 곳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떨어져 죽은 이가 있었다. 천 선교사는 정확한 위치 파악을 할 수 없어 발을 구르는 중에 다른 탈북자로부터 이 소식을 접하고는 자식을 잃은 듯 슬퍼했다고.

탈출은 비밀리에 몇 개국의 국경을 넘어야만 하는 긴 행로에 탈북자도 인술자도 탈진하고 만다. 저들의 자유와 안식만이 천 선교사의 소명이고 평안이기에 함께 고통을 견뎌낸다. 또한 탈북자들을 돕는 중에 몽골 국경지대에서 중국경비대에 체포되어 8개월간 감옥살이를 했다. 흙바닥의 혹독한 추위와 실내 번기통과 모래 섞인 물을 한 컵에 하루 두 끼 누런 밀가루 떡 덩이로 연명했어도, 탈출을 시도하다 잡혀간 열 세 명의 탈북자들이 당할 가혹한 형벌이 천 선교사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 7개월이 넘도록 가족의 면회도 안 될뿐더러 영사와의 면담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심문자

의 거듭되는 질문은 왜 그들을 돕느냐는 거였다. 친척이거나 아는 관계가 아니라면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천 선교사의 소명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형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12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미국 상하 양원에서 석방결의안이 나오면서 8개월 만에 벌금을 내고 추방됐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심문을 하던 중국검사가 검사직을 구만 두고 한국으로 천 선교사를 찾아 왔다. 어떤 이념이 그에게 타인을 위해 목숨을 걸게 했는지 궁금해서란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의는 또 한 사람의 인생행로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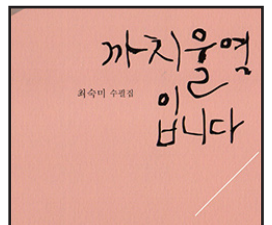
천 선교사의 ‘두리하나’ 선교회 주관으로 거행되는 ‘탈북동포의 날’ 이 10주년을 맞았을 때의 일이다. 교회 여러 단체와 탈북에 힘을 신는 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탈북자들과의 만남과 북한 정부를 향한 성명서가 선포되었다. 천 선교사를 유대인을 구출해 낸 선들러 같은 선각자라고 소개했다. 선들러와 천 선교사의 행적이 교차하는 중에 작아지는 나를 발견했다. 교회에서 커피 한잔을 사는 것도 탈북자를 위한 일인데 그 작은 일에도 소홀하지 않았던가. 기념예배가 끝나고 틈을 내서 탈북 소녀를 꼭 끌어안았다. 그 소녀에 대해서 아는 건 없지만, 신앙 안에서 밝게 살아가는 모습이 기특하고 또 미안해서 깊이 안아 줬다. 저들과는 자주 얼굴을 대하지만 정작 친숙하게 지내지는 못 했다. 그러한 관계가 서운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성큼 다가서지 못한다. 개인적인 성향 때문이라고 해명하기에는 내가 가진 사랑이 작아서가 아닐까.

탈북에 도움을 받은 자 모두가 천 선교사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불평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모함하기도 해서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는다. 사소한 오해가 그의 발목을 잡아 소명자의 역할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노릇하던 애굽에서 광야로 탈출시켰을 때 먹을 것을 주든지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 달라며 모세를 원망하던 모습과 흡사해보여서 공분이 일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함이나 원망이 억울하다고 소명을 멈출 수 없는 일이라며 염두에 두지 않는다. 소명자의 역할이 그런 것일까. 어찌 인간적인 애통함이 없을까 마는 탈북을 요청하는 자들을 찾아 가시발길에 나서는 것을 주저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이고 인류를 구하는 소명자이지 않을까.

미국 국회에서 탈북자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미국인들과 재외동포들로부터 호응을 받아 그들을 탈북 시키는 데 발 빠른 행보가 이어진다. 우리나라 정부에선 탈북자들을 돕는 일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으려 하는데다, 국민의 무관심이 난관에 부딪히기도 한다. 탈북자들을 남한에 와서 적응을 잘 못하는 부분에 일조하는 셈이기도 하다.

‘오보에’ 하나만 들고 원시인들과의 접촉을 시도했던 가브리엘 신부는 그들과의 신뢰가 쌓이기까지 죽음의 공포에서 떨었다. 천 선교사 역시 죽음의 기로에서 오는 공포가 습관처럼 엄습하리라. 소명자로서의 길을 걷고 있지만, 보통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에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추방된 이후로 중국으로 직접 들어갈 수 없는 처지를 몹시 안타까워한다.

강을 거슬러 올라야만 했던 가브리엘 신부처럼 오늘도 탈북자들을 위해 절벽을 오르고 국경을 넘는 저들을 위해 뜻을 모았으면 한다. 통일이 되는 그 날까지 천 선교사와 같은 소명자들이 거슬러 오르는 절벽에는 ‘둘이 하나’ 되는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있으리라 **2**



◆ 최속미 수필집 "까지울역 입니다" 중에서 ◆

1 체험활동 신문기자

기자 체험 탈북 청소년들 "신문 만드는 일 너무 신나요"

[조선일보 미디어체험관 '뉴지엄' 관람객 5만명 돌파]

- 기자 꿈 키워주는 명소로 각광

두리하나국제학교생 33명 찾아... 기사 쓰고 직접 뉴스프로 진행
직업체험 기회 적은 지방학생엔 교통비 등 일체 지원 무료견학도

"진짜 앵커 같다!"

14일 오전 서울 동작구에 있는 조선일보 뉴지엄(Newseum·뉴스박물관) 방송 스튜디오. 천장에 걸려있는 스크린에서 '조선미디어뉴스' 방송이 나오자 관람객 16명이 '와' 하는 함성을 질렀다. 관람객은 모두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두리하나국제학교' 학생들이었다. 뉴스 앵커석에는 이 학교 학생 최전림(15)군과 김성(17)군이 앉아있었다. 이들은 프롬프트에 표시되는 인사말을 번갈아 읽으며 모의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어서 뉴욕 특파원 역할을 맡은 강홍림(15)군이 블루스크린 앞에서 미국 축제 소식을 전했다. 스크린에 비친 강군의 등 뒤로 뉴욕의 헬러윈 축제 영상이 펼쳐지자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 4일 오전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두리하나국제학교' 학생들이 서울 동작구 조선일보 뉴지엄(Newseum) 안에 있는 조선일보역사기념관을 둘러보고 있다. 뉴지엄은 '뉴스(News)'와 '박물관(Museum)'의 의미를 아우른 것이다. 2013년 3월 개관 이후 5만명이 이곳을 다녀갔다. /김지호 기자

같은 시각 옆방의 '신문 편집국'에서는 이 학교 초등부 학생 17명이 컴퓨터로 '두리하나신문' 1면을 편집했다. 취재 현장실에서 북극의 빙하가 무너져 내리는 영상을 보고 북극곰 모형을 취재한 정혜은(10)양은 지구온난화로 멸종 위기에 처한 북극곰에 대한 이야기를 기사로 썼다. 직접 찍은 사진을 넣고 기사 제목도 달았다. 정양은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써 보니 진짜 기자가 된 것 같았다"며 "가수가 꿈이었는데 기자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학교 학생들은 탈북한 뒤 중국에 체류하던 부모 밑에서 자라 중국어는 유창하지만 한국어는 서투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와 함께 탈북하자마자 곧바로 한국으로 온 일부 학생도 남북의 문화와 교육과정 차이 때문에 학교 생활 적응이나 진로 탐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2015년 가족과 함께 북한을 탈출한 조원혁(12)군은 "기자라는 직업이 있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다"며 "신문 만드는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또 해보고 싶다"고 했다. 이 학교 국어 교사인 이주원(32)씨는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탈북 청소년들에게 이번 체험이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3월 5일 개관한 뉴지엄은 신문·방송 등 미디어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가는 명소가 됐다. 지난달 31일에는 개관 4년 만에 방문객 5만명을 돌파했다.

개관 첫해 7063명이었던 방문객은 지난해 1만7337명으로 급증했다. 지금까지 초등학생 2만6000여명, 중·고등학생 2만3000여명이 뉴지엄을 찾아 신문·방송 뉴스 제작을 체험했다. 뉴지엄 프로그램 진행자 김정아씨는 "신문·방송에 관심이 있는 자녀를 데리고 방문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며 "다른 데서는 접해볼 수 없는 방송 스튜디오 체험이 특히 인기"라고 했다.

뉴지엄은 직업 체험 학습을 해볼 기회가 비교적 적은 지방 학생들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방일영문화재단과 함께 무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초 프로그램 참가를 신청한 학교 중 일부를 선정해 미디어체험관 무료 체험과 조선일보 역사기념관, 조선일보 본사 견학 기회를 제공한다. 교통비와 입장료는 두 재단이 전액 지원한다. 올해 168개 학교 5000여명이 무료 체험 프로그램 대상으로 선정됐다.

다른 학교나 개인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하면 소정의 체험비(5000~1만원)를 내고 참가할 수 있다. 월 2회 신문활용교육(NIE)과 기자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프리미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전화 (02)3280-3244, 홈페이지 newseum.chosun.com 

2017.04.15 03:10 조선일보 김결필기자

2 체험활동
플라잉 요가



3 체험활동
발레

4 체험활동
옥상텃밭
가꾸기



5 체험활동
핸드드립
커피

6 체험활동
플레이
엑스포 관람



7 체험활동
안전문화
체험관

탈북자 다큐

'천국의 국경' 키예프 국제인권영화제서 인기

상영관 정원 넘는 관객 몰려 재상영 예정...北인권 실상에 눈물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인권다큐멘터리영화제(Docudays AU)에 초청된, 탈북자 인권문제를 다룬 다큐 영화 '천국의 국경'(Heaven's Border)이 현지 영화 팬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6일 오후 8시 30분(현지시간)부터 키예프 시내 시네마하우스에서 열린 상영회에는 1시간 전부터 상영관 정원 300명을 훌쩍 넘는 관객들이 몰려들었다.

천국의 국경은 탈북자 인권을 집중적으로 다룬 70분짜리 작품이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는 장면, 중국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 마약 밀매를 서슴지 않는 북한 군인, 생이별을 감수해야 하는 탈북자 가족들의 비애, 탈북자라는 신분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 등 여러 에피소드로 구성됐다.

동유럽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탈북자들의 비극에 관객들은 연신 눈물을 흘리는 등 영화에 심취했다. 영화제 위원장인 스비틀라나스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큰 관심을 보였다.



▲ 인권운동가 천기원 목사, 이학준 감독 등이 관객들과 대화하는 간담회 모습. [사진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 제공]

상영회 직후엔 영화를 만든 이학준 감독,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탈북자들, 인권운동가 천기원 목사 등이 관객들과 대화하는 간담회도 열렸다. 관객들은 북한 인권 상황, 탈북자들의 법적 지위, 영화 출연자들의 근황, 다큐멘터리 제작 동기 등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천국의 국경은 키예프 인권영화제 비경쟁부문 특별초청작으로 상영됐다. 이번 영화제 폐막작으로도 2015년 8월 서양 록밴드 최초로 평양에서 공연한 슬로베니아 록밴드의 공연을 통해 드러난 북한의 실상을 다룬 노르웨이 감독 작품 '광복절(Liberation Day)'이 상영된다.

지난해 영화제 때도 역시 북한 내 이상화 문제 등을 다룬 비탈리 만스키 감독의 '태양아래'(Under the Sun)가 개막식 특별초청작으로 상영된 바 있다. 영화제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꾸준히 상영되는 것은 스말 영화제 위원장의 북한 인권에 대한 각별한 관심 때문으로 알려졌다. 키예프 국제인권다큐멘터리영화제는 2003년부터 시작된 국제영화제로 매년 3월 마지막 주에 개최된다. 우크라이나와 핀란드 인권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유럽연합(EU), 미국 민주화 기금(NED),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국제 조직과 기구의 후원 아래 열리고 있다.

지구 온난화를 핵심 주제로 24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올해 영화제엔 47개국 94편의 영화가 출품됐다. **D**

2017/03/27 22:19 연합뉴스



꿈꾸는 아이들

노래도, 평화도

와글와글 힘차게

전하고 있지요

노래로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전하는 탈북청소년들로 구성된 와글와글 합창단.. 전국 곳곳을 다니며 우렁차고 아름다운 하모니로 평화와 통일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와글와글
합창단
초청 공연



* 제 7차 한독 통일자문위원회 특별공연/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

* 덕수궁 돌담길 와글와글 합창단



* 실로암 안과 병원
부활절 감사 예배



* 시리아 난민 돕기 음악회 /
새롬 문화 센터



* SDC 나라 사랑 콘서트 /
과천 시민 회관



* 아모그룹 부활절 찬양예배



* TV조선 모란봉 클럽 출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서...

2017

두리하나
미국 문화 체험 활동

*Durihana
American culture
experience activity*

일시

7월 8일 (토) ~ 7월 26일 (수)

July 8th Sat ~ 26th Wed

장소

뉴욕, 워싱턴 등

New York, Washington, etc.

후원 : 뉴욕 어린양 교회

THE LITTLE FLOCK CHURCH

제15회 칼북동포주일 기념예배

2017. **6.11.** (일) 오전 11:00
연천군남교회

2017. **6.18.** (일) 오후 19:00
참원임마누엘교회

2017. **6.23.** (금) 오후 21:00
송내중앙감리교회

2017. **6.25.** (일) 오전 11:00
고성성산교회

2017. **6.25.** (일) 오후 15:00
고성기독교연합회

2017. **6.28.** (수) 오후 19:30
충주충일교회



- 와글와글합창단 -

주 최 : (사) 두리하나

후 원 : CBS기독교방송 CTS기독교TV

febc 기독교방송

국민일보

문 의 : 02)532-2513

급식봉사

두리하나 국제학교 급식봉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두리하나 사무실(02-532-2513)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손이봉사단(6월7일)



송내중앙감리교회(5월24일)



무지개팀(5월9일)



남산교회(5월15일)



어머니봉사단(5월10일)



아프리카팀(5월22일)



다중교회(5월31일)



영화모교교회(5월25일)



향산교회(5월23일)



조청우집사님(6월1일)



은누리교회사랑팀(5월17일)



삼성증권팀(5월23일)

급식봉사로 섬겨주신 자원봉사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리하나를 함께 이끌어 갈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 정착지원팀** 교육(외국어, 컴퓨터, 악기 등) 탈북자 취업 및 진로상담
탈북청소년 고민상담, 친구 되어주기(외)
- 사회사업팀** 행사기획 및 실무(외)
- 문서사업팀** 소식지 제작 및 편집·발송(외)
- 정기모임팀** 월요기도모임 준비(찬양인도 및 반주)(외)
- 국제인권팀** 탈북자난민지위 확보를 위한 국제 인권운동참여 및 외국어 통역·번역(외)
- 인터넷관리팀**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외)
- 두리하나국제학교** 두리하나 국제학교 교사 및 방과후 활동 학습지도교사



WHAT'S NEW

두리하나의 상반기를 단장한 새 소식과 뉴스, 이모저모.

| 천기원목사님 동정

5월14일~16일 제162차 송내수련원집회
5월16일~23일 컬럼비아대학 현부흥형제 졸업식



뉴저지 GCC(담임:Jae Park목사)교회 집회
6월11일 연천군남교회 집회
6월18일 창원임마누엘교회 집회
6월23일 송내중앙감리교회 집회
6월25일 고성성산교회집회, 고성기독교연합회 구국기도회
6월28일 충주충일교회

| 두리하나국제학교 초등 위탁 과정 졸업식

지난 2월10일, 두리하나국제학교 초등과정 위탁학생 졸업식이 방배초등학교에서 열렸다.이 날 졸업식에는 송일(남), 이찬진(남), 정현호(남) 졸업생 세 학생과 선생님, 친구들이 참석해 중학교 진학을 앞둔 이들의 졸업을 축하해 주었다.



| 즐거운 수영교실

두리하나국제학교는 초등반 체육활동의 일환으로 3개월 수영교실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물에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앞으로의 신체발달 및 인성함양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아모텍 김병규회장님의 특강과 친교의 시간

4월3일 오후7시, 아모텍 김병규회장님께서 바쁘신 가운데 두리하나를 방문해주셔서 두리하나식구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맛있는 피자과 치킨으로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부활절 감사찬양예배

4월10일 실로암 안과병원에서, 4월15일 아모그룹에서 두리하나 연합으로 부활절 감사 찬양예배를 드렸다.




| 두리하나 야외예배

4월30일(주일), 두리하나 식구들 모두 함께 모처럼 송내수련원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예배도 드리고 게임도 하면서 은혜롭고 즐겁고 자연과 하나 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 탈북난민 구출 음악회 성황

올해로 35회를 맞는 탈북난민 구출 음악회가 지난 5월7일 한국일보 후원으로 플러싱 JHS 189 학교 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뉴욕예술가곡연구회와 두리하나 USA가 주최한 이번 음악회에는 정상급 한인 성악가들이 성가와 가곡 등을 노래하며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 더 많은 뉴스는 두리하나 웹사이트(www.durihana.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DURIHANANA
INTERNATIONAL SCHOOL

두리하나 국제학교 신입생·편입생 모집



1. 모집단위 : 초등, 중등, 고등학교 과정
2. 지원자격 : 탈북청소년 및 중국출생 탈북자녀
4. 원서접수 : 연중수시
5. 입학문의 : 02-532-2513

두리하나는...

북한동포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하며 평화통일에 헌신 할 일꾼들을 양성하여
남북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게하는 평화운동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두리하나의 받은바 소명은...

탈북자들을 통하여 닫혔던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고,
이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 중국교회와 연합하여 다가올
21세기 통일한국 시대가 이루어 질 때에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주님의 명령에 동참하는
“Back to Jerusalem” 사역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21세기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선물로 “통일한국”을 주실 것입니다.
통일한국을 위하여 북한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무릎과 두팔로 헌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북한선교 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손에서 돌이 하나가 되리라 (겔 37:17)”

● 후원방법

● 계좌이체(예금주 : 사단법인 두리하나)

농협은행 : 088-17-007375 | 외환은행 : 335-22-03034-7 | 신한은행 : 100-023-334747 | 우체국 : 012872-01-002780

국민은행 : 342301-04-012737 | 우리은행 : 122-387319-13-001 | 기업은행 : 302-056162-01-018

해외 : paypal이나 신용카드, 또는 수표(체크), 현금등을
Durihana, PO Box 4429, Santa Fe, New Mexico 87502-4429로 보내면 됩니다.

● 후원 회원이 되시면

1.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북한선교 소식지「두리하나」를 발송해 드립니다.
3. 북한선교를 위한 탈북 영상물을 신청하신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탈북고아원후원



탈북자구출지원



탈북청소년국제학교후원



그룹홈 후원



사단법인 두리하나

두리하나 국제학교
두리하나 그룹홈
두리하나 교회

한국

홈페이지: www.durihana.com
E_mail: angel@durihana.com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18-3
TEL: 02-532-2513
FAX: 02-532-2517

GLOBAL

Homepage: www.durihanamission.org
E_mail: durihana@gmail.com
Adress: 1533 St. Francis Dr., Suite C,
Santa Fe, NM 87505
TEL: 1-505-428-0634